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박태환

‘마린보이’ 박태환이 살아가는 방식

경기 당일 온탕 찾을 만큼 최악 컨디션 전국체전 4관왕 등극…톱 클래스 증명 아시안게임 대비 100% 몸 만들기 주력

‘마린보이’ 박태환(28·인천광역시청)의 시선은 오직 한 곳으로 향한다. 2018자카르타아시안게임이다. 그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명예와 영광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무대다.

박태환은 24일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에서 3분50초89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반응속도 0.66초에 스타트를 댄 그의 기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레이스를 마칠 때 2위와 거의 3초 가까이 차이가 있었으나 3분50초대가 나온 것은 2005년 10월 전국체육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몸이 좋지 않았다. 4~5주에 불과한 짧은 대회준비, 타이탄한 일정에 근육이 살짝 올라왔다. 기권도 조심스레 고려할 정도였다. 그래도 책임감으로 뛰었다.

숙소에 마련된 온탕에서 몸을 풀었다. 경기 당일, 박태환이 더운 물을 찾은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경쟁자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웠다. 평소보다 훨씬 좋지 않은 몸 상태로도 첫 번째 50m 구간부터 독주하다보니 좀처럼 분위기를 탈 수 없었다. 비슷한 실력의 경쟁자가 곁에 있고, 추격자를 의식할 때 함께 기록도 올라가는 법이다.



2018자카르타아시안게임으로 시선을 맞춘 박태환(인천광역시)이 최악의 몸 상황에서도 남다른 기량을 뽐냈다. 24일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대회 4관왕이 됐다. 청주 | 뉴스시스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 400m에서 3분44초38로 4위에 올랐던 박태환은 주 종목에서 두드러진 역량을 펼치지 못했다. 전날(23일) 끝난 200m에서 1위(1분46초23)로 끝난 뒤 “이제는 내가 독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400m 레이스는 ‘박태환 시대’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그는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나선 남자 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서도 정상(3분19초84)에 오르면서 22일 계영 800m(7분19초37)를 포함, 대회 4관왕이 됐다. “동료들과 함께 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게 박태환의 얘기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 못지않게 치열하다. 쑨양(중국)과 하기노 고스케(일본) 등 강력하고 경쟁한 라이벌들이 버티고 있다. 메달권 진입이 만만치 않다. 박태환은 우승 자체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성과를 내고,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국체육대회 200m 우승 직후 “좋은 마무리에 대한 욕심이 난다”는 소감을 털어놓은 이유다.

현역선수 박태환의 타임테이블은 최대 1년 단위다. 30대를 앞둔 나이로 볼 때 회복능력으로 볼 때 장기계획은 세우기 어렵다. 3년 뒤 2020도쿄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 이후의 메이지대회인 2019광주세계선수권 출전 역시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국내에서 개최될 세계선수권 참가는 흔치 않은 기회이지만 그 시점에서의 몸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박태환은 주요 월드컵 시리즈에 꾸준히 출전하며 아시안게임을 대비할 참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워낙에 급히 준비한 터라 100% 컨디션이 아니었다. 회복능력과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최선의 오늘 그리고 내일, 또 혼신의 내일이 박태환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청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다음달 1일 한국에 도착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박지성이 24일(한국시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올림피아(그리스) | AP뉴시스

평창올림픽 성화, 그리스 전역 누빈다

올림피아서 채화식…성화 봉송 스타트 박지성 주자 참여…내달 1일 국내 도착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24일(한국시간)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마침내 채화됐다. 당분간 그리스 전역을 누빌 성화는 다음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채화식은 이날엔 국무총리, 이회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지성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등 국내 관계자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프로코피스

파블로폴로스 그리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성화의 첫 봉송 주자는 그리스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아포스톨로스 앙겔리스가 맡았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박지성이 앙겔리스의 성화를 이어받아 한국을 대표해 두 번째 주자로 달렸다.

성화는 이날 첫 봉송을 시작으로 그리스 내 20개 지자체 36개 도시 2129km를 달린 후 오는 30일 아크로폴리스로 도달한다. 그리스 현지 봉송을 마친 성화는 31일 그리스 근대올림픽 경가장 아테네 파나티나이크 스타디움에서 평창 대표단에게 인계돼 전세기를 통해 11월 1일 국내에 도착한다. 김도현 기자 dzhoney@donga.com

육상으로 치면 볼트가 30명인 한국양궁

신예 이승일·위나연 전국체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까딱하면 탈락

한국양궁은 세계 최강이다. 언제나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됐고 위안과 신뢰를 줬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태극궁사들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쓸어 담았다. 올림픽 4개 종목을 전부 가져왔다.

특정 종목에서의 100% 우승은 흔치 않다. 하지만 단기간의 준비로 이뤄진 결실이 아니다. 양궁인들은 끊임없이 풀뿌리를 발굴했고, 기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치열한 내부경쟁을 하고, 연선된 자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체육인들은 “양궁에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충북 일원에서 진행 중인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해 뜨거운 감동을 안긴 태극궁사들은 대회 시상식에서 찾기 어려웠다. 24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남녀 개인전(리커브)에서 전부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남자 일반부는 이승일(사상궁정), 여자부에서는 위나연(하이트진로)이 정상을 밟았다. 리우올림픽 개인·단체전 2관왕 구본찬(현대체협)은 대회 32강전에서 탈락했다.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코오롱)은 8강에서 이률이 지워졌다. 여자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올림픽 단체전 우승자 기보배(광주광역시청)도 16강 진출에 그쳐 엄청난 경쟁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왕년의 스타’ 윤미진(여주시청)은 어렵게 은메달을 땀다.

이번 대회에 태극궁사 전원이 출격한 것은 아니다. 올해 새롭게 꾸려진 양궁국가대표팀은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끝난 ‘현대 세계선수권’에서 종합우승(금5·은1·동2)을 차지했다. 올림픽 종목 리커브의 임동현(청주시청)과 강재형(영희

대)이 2관왕에 오르는 등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 한국양궁의 저력을 각인시켰다. 양궁대표팀은 매년 태극마크의 주인공들을 새롭게 뽑는데, 올림픽 우승자가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출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면 다음해는 소속 팀에서와신상담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올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온 현직 대표팀 멤버들이 전원 출격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육대회 정상을 장담할 수 없다. 리우올림픽 당시 남자대표팀을 이끈 광주광역시청 박채순 감독은 “자메이카 육상 대표선발전에 우사인 볼트가 30여명쯤 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우승을 장담하겠느냐”고 했다. 리우올림픽 총감독으로 활약한 예천군청 문형철 감독 역시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긴장의 연속이다. 찰나의 방심이 결과를 바꾼다. 모든 선수들이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실력들이 우수하다. 독보적인 존재가 없어 우리 양궁이 강한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청주 | 남정현 기자

올림픽아카데미 참가 모집 내달 3일까지 선착순…올해로 29회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1월15일부터

2박 3일간 태릉선수촌에서 개최하는 제29기 K 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의 참가자를 23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KSOC 올림픽아카데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즈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이다.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홈

페이지(www.sports.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11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이번 KSOC 올림픽아카데미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올림픽즈’이라는 주제로, ▲올림픽의 역사와 올림픽즈 ▲올림픽즈 확산을 위한 KSOC의 역할 ▲올림픽과 미디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마케팅 등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올림픽 연과의 만남, 조별 분임토의, 체육활동 및 테크 라이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종 이수자 중 우수자를 선발해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참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우리카드, 삼성화재 잡는다” 65%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www.ktoto.co.kr)는 25일 열리는 2017~2018 V 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한 결과, 국내 배구팬의 65.24%가 우리카드-삼성화재(2경기)전에서 우리카드의 우세를 전망했다. 삼성화재의 승리 예상은 34.75%에 그쳤다. 최종 세트스코어에서는 3-1 우리카드 승리(23.58%) 예상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서는 6점차(24.28%)가 1순위였다. 여자부 현대건설-흥국생명(1경기)전에서는 현대건설의 승리 예상(59.94%)이 흥국생명(40.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트스코어에서는 3-2 현대건설 승리(21.81%) 예상이 가장 많았다. 1세트 점수차의 경우 3점차(27.02%)가 최다를 기록했다.

배구토토 스페셜은 국내외 남녀 배구경기의 홈팀 기준 최종 세트스코어와 양 팀의 1세트 점수차를 맞히는 게임이다. 세트스코어 항목은 홈팀 승리인 3-0, 3-1, 3-2와 원정팀 승리인 0-3, 1-3, 2-3 등 여섯 가지다. 1세트 점수차 항목은 2점차, 3점차, 4점차, 5점차, 6점차, 7점차 이상으로 제시된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게임은 1경기 시작 10분 전인 25일 오후 4시 50분 발매가 마감된다.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구분	(1경기)	(2경기)	
	현대건설 vs 흥국생명	우리카드 vs 삼성화재	
세트 스코어	3대0	18.58%	22.08%
	3대1	19.55%	23.58%
	3대2	21.81%	19.58%
	0대3	15.12%	14.14%
	1대3	8.90%	9.99%
	2대3	16.05%	10.62%
1세트 점수차	2	13.78%	5.69%
	3	27.02%	19.79%
	4	18.21%	18.95%
	5	9.44%	12.69%
	6	15.45%	24.28%
	7+	16.11%	18.59%
승패	홈팀 승리	59.94%	65.24%
	원정팀 승리	40.07%	34.7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골프토토 스페셜 31회차 <KPGA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투표율 중간집계

구간/선수	3오버 이상	1~2오버	0(이븐)	1~2언더	3~4언더	5언더 이하	언더파 예상
최진호	6.73%	5.63%	14.58%	26.02%	24.03%	23.00%	73.05%
이정환	6.46%	20.09%	11.80%	24.03%	25.49%	12.13%	61.65%
이형준	4.43%	19.96%	13.23%	21.42%	26.27%	14.69%	62.38%
변진재	5.40%	10.13%	13.55%	20.32%	29.48%	21.12%	70.92%
이승택	10.68%	9.05%	14.62%	35.89%	16.42%	13.34%	65.65%
박은신	5.89%	14.83%	14.33%	30.55%	24.01%	10.38%	64.94%
김기환	8.55%	19.60%	8.29%	23.68%	16.84%	23.04%	63.56%

“최진호 언더파 활약 전망” 73%

골프토토 스페셜 31회차 중간 집계

골프팬들은 ‘KPGA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1라운드에서 최진호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26일 경남 김해시 정산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KPGA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31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73.05%가 최진호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4번 선수 변진재(70.92%)도 70% 이상의 언더파 확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승택(65.65%), 박은신(64.94%), 김기환(63.56%), 이형준(62.38%), 이정환(61.65%)의 언더파 확률도 6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